

# 새만금, 추진동력 확보로 개발 탄력

### 철도·공항 계획 반영·총리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인센티브 법제화·SOC 본격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이 남북도로 발주 등 SOC 구축과 총리산하 지원단 설치와 필요한 제도 도입,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등으로 내부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철도와 공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그동안 갈등상황이었던 송전선로 설치가 완료됐으며 전력시설 지중화에도 진전이 있었다.

또한 총리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 부처간 정책조정이 수월해졌고 투자자와 개발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법제화됐다.

새만금 유역 수질도 왕궁 주교제 준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수질(T-P)과 복합약취가 각각 61%, 50%가 개선되는 등 2016년 도에도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가 많았다.

지난 11월 사업을 발주한 남북도로와 올 말이면 30% 공정율을 달성할 동서도로는 향후 새만금 내부 십자형 간선도로 구축으로 민간투자유치 및 내부개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서 광역교통망 역할을 담당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지난 2월 설계착수해 내년 6월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야~새만금항 철도가 반영, 고시령에 따라 원활한 새만금 내외부 물류 유통의 구축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0월 방파제 공사를 완료한 신항만은 연내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발주를 통해 국제 물류 중심지의 토대를 차질없이 마련 중이다.

또한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제도가 개선됐다.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정책 조정 총괄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새특별 개정법을 통해 총리 산하에 지난 2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했다.

아울러 제9차 무투회의의 후속조치 추진과 새특별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네거티브 규제프로세스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가 법제화됐다.

속도감 있는 용지 매입 조성을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대규모 매입사업의 특성상 민간개발이 어려운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주도의 새만금 용지 매입 필요 논리를 개발해 새만금 위원회에서 토의과제로 채택해 대응하고 지난 15일 정.관.학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새만금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갔다.

계획대로 2020년까지 농생명 용지조

성을 위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2,398억원 확보 등 차질 없이 농생명용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했다.

또한 주민과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송전선로를 완공하고 전력 지중화를 위한 사업비 산출 및 기재부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도입, 주민 자체 지도점검 체계 구축 등 새롭고 다양한 수질개선 제도를 도입 추진했고 왕궁 축사 매입, 주교제 준설 등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익산천 수질이 전년 대비 수질(T-P) 61%, 복합약취 50%로 개선됐다.

또한 새만금유역 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총 1,040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 하수관로 120km 구축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했다.

/인재용 기자

### ‘도전! 드림-투자벤처 로드쇼’ 22일

9개팀 공개 IR... 최우수 팀, 피칭데이 기회 · 2억 지원

전북도는 22일 4층 대회의실에서 감소기업 육성과 우수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IR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도전! 드림-투자벤처 로드쇼라는 타이틀로,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창업지원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별도 평가위원의 심사와 전문 심사위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8개 팀이 선발됐고, 데모데이를 실시해 이중 9개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다.

22일 본행사에서는 기업 별 공개 IR(기업설명회)을 진행해 전문 심사위원 및 청중평가단의 심사를 받아 최우수 팀을 선발할 예정이

다.

진출 기업의 IR역량 강화를 위해 12월 초 K-ICT 창업멘토링단의 고품질 멘토링을 실시하고, 기업별 방송광고를 제작해 도민들에게 창업기업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도 진행했다.

심사위원단으로 최우수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투자관심을 진행시키기 위해 전문 벤처투자회사의 임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모로 모집된 시민평가단의 청중평가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창업기업에게는 투자회사의 피칭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총 2억원 상당의 사업화 지원도 받게 된다.

/인재용 기자



신규 국책사업 발굴 최종보고회 1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전북 과학기술위원회 성장동력산업 신규 국책사업 발굴 최종보고회에 진흥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성장동력 신규 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전북경제, 불황 속에 실속 있는 성과 돋보여

### 탄소산업 국가주도 추진체계 마련·연구개발 특구 성공적 안착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탄소산업의 국가주도 추진체계 마련과 연구개발 특구의 성공적 안착 등 전북 경제가 실속있는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10년간 탄소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성장시켜왔고 정부는 탄소산업육성법을 제정했다.

또한 탄소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 국책사업(9개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총사업비 1,890억원)로 반영돼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로 '메가탄소밸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탄소복합재 제품의 상용화 촉진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출범 1년 만에 76개사 176건을 지원해 신규 기술창업 38건(연구수기업 22, 벤처창업 16), 신규

고용창출 113명, 투자유치 15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앞서 지정된 타 시도 특구의 초기 실적을 추월하는 성과로써 전북 특구가 전북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원을 내년 국가예산으로 확보해 기술발굴과 기술이전.연계.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전북도의 국가연구개발(R&D) 투자규모(2015년 5,154억원)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해 처음으로 광주광역시를 추월하는 등 초남권 R&D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국내 유일의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 조성,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국가 신규사업 반영 등을 통해 도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VCA)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돼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에 해외인증 취득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마련했다.

/인재용 기자

## 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 위촉

전북도는 19일 종합상황실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 제3차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제3차 자문위원회는 학술 전문가 7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3명, 공주·부여·익산 지역 세계유산 관리 주민 대표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018년 12월18일까지 2년이다.

이번 구성 되는 자문위원회는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정기 보고서 작성,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모니터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백제화 통합 연구,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및

활용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분과위원회는 보존관리, 활용홍보, 주민참여 등 3개 분과로 지자체별 광역.기초의원 및 학술전문가가 망라된 전문조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분야별 전문가를 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위촉식에 이어, 제3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운영방향 보고와 위원장.부위원장.분과위원장 선임,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재용 기자

## 도,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도·시·군 합동 워크숍 마련

전북도는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대명리조트에서 도시군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예산업무에 함께 공유하는 등 국가예산확보 의지를 함께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하반기 합동 워크숍은 예산확보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 및 미흡사항을 환류 개선하고 2018년 및 2019년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함께 모색하는 등 관계자의 역량을 배가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출범 2주년 활동보고회 개최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출범 2주년을 맞이해 농촌진흥청,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활동보고회가 19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렸다.

농생명연구협의체는 전북 농생명 혁신기관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산업현 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활동보고회에서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와 함께, 발굴된 공동기획과제 2개 사업에 대한 발표와 대전지역 협의체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인재용 기자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동석(1932. 8. 21.생 2016. 9. 16.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김동관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6년단339 상속한정승인 판사 김동관  
▶피상속인: 망 이동석(1932. 8. 21. 생 2016. 9. 16. 사망)  
최후주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07-12(용산리)  
▶공고인: 이종현  
▶한정승인수리일: 2016. 11. 21.  
▶공고기간: 2016. 12. 20. ~ 2017. 2. 19.  
▶연락처: (청구인 이종현의 주소지)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07-12(용산리) 010-9000-9926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